

시즌 1승 4패 부진... 위기의 KCC

하승진·안드레 에밋 부상... 대체 용병 영입 골밑 무개감 떨어져 추 감독 시즌운영 차질

시즌 초반 1승 4패로 부진에 빠진 전주 KCC 이지스 농구단이 하승진과 안드레 에밋의 부상으로 인해 더욱 큰 위기에 빠졌다.

고양 오리온스와의 개막전에 출전했던 하승진은 다음날 열린 창원 LG전부터 지금까지 발목부상으로 인해 출전을 못했다.

경기 직후에는 간단한 부상으로 알려졌으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왼쪽 발목 인대 접합수술을 받아야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구단측은 비시즌에는 몸상태가 굉장히 좋았으나 연습경기와 프로-아마 최강전을 소화하면서 몸에 이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추승균 감독은 "승진은 발목 인대가 다 떨어져 나가 없다면 뼈가 부딪치면서 땅이 든 것 같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일반 선수들이 동일한 부상을 당한다면 4개월이면 회복이 충분하지만 승진은 더 걸릴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하승진이 출전하지 못한다면 KCC의 골밑은 노장 주태수와 신인 한준영이 지켜야 한다.

주태수가 최근 부진하고 있던 하지만 타팀의 골밑에 비해 확연히 무개감이 떨어져 추 감독의 시즌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시즌 외국인 MVP 선수인 안드레 에밋 역시 개막전 출전 직후 사타구니 부상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원주 동부전에 깜짝 출전했으나 오히려 출전이 독이 되 30일 KCC전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정밀검사 결과 수술까진 아니더라도 당분간 회복을 위해 경기 출전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KCC는 일시대체선수로 지난해 삼성에서 활약한 에리 와이즈를 대체 선수로 급히 영입했다.

와이즈는 안드레 에밋과 다르게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골밑에서 주로 활약하는 용병이다. 문제는 와이즈가 현재 소속팀이 없는 상태로 몸상태를 100% 장담할 수 없다는데 있다.

추 감독은 대체용병으로 와이즈를 택한 이유에 대해 "대려올 만한 선수가 없다. 그나마 그 중에 와이즈가 낫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라이온스가 외국에서 하니 골밑성향이 있는 와이즈가 낫다. 지금 소속팀이 없는데 꾸준히 운동은 해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와이즈는 구단이 서류 절차를 서두르고 있어 5일 SK전부터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승진과 안드레 에밋 중심으로 구성된 KCC의 시즌 계획은 완전히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리오 라이온스가 전성기를 방해



하는 활약을 펼치는 점과 송교창의 성장세는 고무적이지만 순식간에 약해진 골밑과 스윙맨의 부재는 세부전술로 매워야 하는 숙제 역시 안게 됐다.

새로운 시합대에 오른 전주 KCC 이지스는 이달 5일 홈에서 서울 SK를 상대로 2연패 탈출을 위한 경기에 나선다.

/김민근 기자

전라북도체육회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프로그램지원을 통하여 건강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북체육회는 올해 3월부터 14개 시·군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르신 밀집장소 등을 찾아 유아체육지도사와 어르신지도자를 파견하여 각종 체육용품지원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6개 시·군 7개소에 전문지도자가 배치되어 어르신들 신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측정과 400여회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14개 시군 96개소에 운동용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전라북도체육회 류창욱 지원육성처장은 "연령별 발육발달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으로 유아의 성장과 건강발달에 기여하고,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김민근 기자

블랙핑크 '불장난' 주요 음원차트 7곳 1위

'블랙핑크(BLACK PINK)'가 상승세를 확인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가 1일 0시 공개한 새 싱글 '스케이퍼 투'의 더블타이틀곡 중 한국어인 '불장난'이 엠넷과 빅스 등 주요 음원사이트 7곳의 실시간차트 1위를 차지했다.

'스케이퍼'는 '불장난'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곡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5개국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음원 공개와 함께 선보인 뮤직비디오 역시 인기다.

'불장난'과 '스케이퍼' 뮤직비디오는 1일 오전 각각 121만 6315뷰, 114만 1958뷰를 기록하며 235만 8273 뷰를 돌파했다.

/뉴시스

전북현대, 8년 연속 ACL 출전

주말경기 5대0 대승 리그 3위 제주와 승점 차 9점 남은 2경기 결과 관계 없이 리그 2위 확보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8년 연속으로 출전 티켓을 획득했다.

전북은 지난 주말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며 리그 3위 제주와의 승점 차를 9점으로 벌려 남은 2경기의 결과에 관계 없이 리그 2위를 확보했다.

따라서 리그 2위까지 주어지는 2017 AFC 챔피언스리그 본선 출전을 확정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연속 ACL 진출 기록은 K리그 최다 출전 기록이다.

지난 2006년 처음 ACL 우승 트로피를 품

었던 전북은 10년 만에 숙원인 아시아 챔피언 도전에 다시 나섰다.

전북현대에는 오는 19일 결승 1차전에 지난 2011년 준우승의 한을 풀고 2차전에는 2006년의 영광을 재현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올 시즌 전북의 ACL 스케줄은 2006년 당시와 평행이론을 보이고 있다.

06년과 16년 모두 4강은 국내 팀과의 대결, 결승은 중동 팀과 1차전 홈경기, 2차전 원정경기를 가졌다.

이 이론에 우승 트로피도 적용 시키겠다는 전북의 계획이다.



주장 이동국 선수는 "이번만큼은 자신이 있다. 10년간 풀지 못한 숙제를 올 해에는 완벽히 해내고 싶다. ACL 뿐만 아니라 리그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더 큰 욕심이 난다. 선수들도 이

두 대회 우승에 대한 열망은 누구보다 강하다. 팬 분들께서 더욱 힘을 보태주시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는다"며 포부를 전했다.

/김민근 기자

곽도원 양우석 감독 신작 영화 '강철비' 출연

배우 곽도원(43)이 영화 '강철비'(감독 양우석)에 출연한다.

1일 영화계 관계자에 따르면, 곽도원은 이번 작품에서 청와대 외교·안보비서실 행정관 '박재익'을 연기할 예정이다.

'강철비'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남북 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스릴러물이다.

이 작품은 지난 2013년 '변호인'(1137만명)으로 데뷔, 1000만 감독 반열에 오른 양우석 감독이 연출을 맡을 계획이다.

'강철비'는 웹툰 '스틸 레인'이 원작으로 이 웹툰 또한 양 감독이 만들었다.

이와 관련 곽도원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곽도원이 '강철비' 출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화는 내년 상반기 본격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시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